

창세기 읽기 스무번째 시간

창세기 읽기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9장 18절 이하입니다. 8장으로 노아홍수 사건이 일단 정리가 되고 9장으로 넘어와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8절부터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요게 빠진다고 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아주 악해졌고요. 급기야 노아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게 하고 홍수가 사십일 동안 주야로 물이 쏟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완전히 재난으로 끝장 날 법한 인류 역사가 노아 가족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한 다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면 다 되었잖아요. 새롭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후에 아들들이 술 취해서 별거벗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아버지 노아로부터 칭찬 혹은 저주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없어도 됨직한 건데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네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똑같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로 함을 지금 꼽고 있네요. 어색하긴 합니다.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노아 방주를 질 때에 누가 혼 혼자 지었겠습니까? 물론 일꾼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아들들이 발 벗고 나섰겠죠 그 대목을 볼까요 성경 기자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긴 합니다.

6장 보면 1절 이하에 사람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노아 방주의 설계도가 6장 13절부터 나와요. 18절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미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언약을 맺을 거다 다 죽은 다음에 모든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 방주에 들어갈 인물은 노아 부부와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예요. 몇 명입니까?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며느리 여덟 명이네요.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더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노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 지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들들도 다 아버

지 말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들도 수고했을 거고요. 만약에 이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면 노아 방주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겠죠.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아들과 며느리들이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럼 칭찬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18절부터 뭔가 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저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죠.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조상이 함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세 형제인데 굳이 함만 따로 분류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군요.

고대 유대인들은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과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영토분쟁이 출애굽 이후 모세의 사십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벌어졌죠. 사사들이 거기 원주민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네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말입니다. 그 근동지방에서 벌어졌던 어디부터 지금까지의 민족간의 갈등과 전쟁은 참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거기에 나라를 세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폭력적으로 억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와 나라가 영토가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거기다 세우는 바람에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의 운명이 가혹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샘, 함, 야벳인데요. 사람을 그렇게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게 그 뒤로 나옵니다.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그냥 신화적인 글쓰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형들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가정 이잖아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다 좋아야죠.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함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적인 갈등이 여기서 엿보이네요.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추태를 보인 거죠 술 마셨으면 약간 마신 게 아니라 제법 마신 거 같습니다. 그럼 조용하게 자면 되잖아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겁

니다. 저게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숨어 있던 게 나오게 되죠. 아님 본래 그 사람의 성격과 정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사람인데 취하기만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상당히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의식의 세계에 평소에는 잘 절제되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꼭꼭 참고 살아요. 참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기를 제어해야 되죠. 어떻게 자기 생각 대로만 행동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사람 들에게 성질을 내고 면박을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못 마땅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로서는 참아야 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을 땐 참아야죠. 그게 자기를 이렇게 제어에서 참는 것과 다시 못해서 꼭꼭 담아 두는 것과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꼭꼭 담아 두었다가는 그게 병이 나는 거죠.

술을 취하면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식에게도 더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평소에 용돈을 적게 주다가도 술 취하면 뭐 더 줄 수도 있죠. 자기 아내에게도 평소에는 말하지 않다가 술 취하면 이쁘다고 한다거나 너무 기분 좋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지는 거죠. 술 취하면요. 두 가지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술 주정으로 나타나는 쪽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술 취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취한 때에는 옛날에 40대 때 현풍에 있으면서 헬스장에 갔다가 헬스에서 끝난 다음 그 모임에서 몇 번 마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이렇게 취했다는 느낌의 흔적은 많지 않아요. 저의 경우는 술 취하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너그러워지고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노아는 약간 추태 비슷하게 별거벗었다고 하네요. 단순히 별거벗은 것만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더 다른 것도 암시하는 건지 그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장면은 아니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노아처럼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놓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노아가 술 취했냐 아니냐 그래서 추태를 벌이느냐 안 벌이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 부끄러운 행동 앞에서 아들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계속 거에 따라다니는군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고대 이스라엘이 늘 경쟁하던 지역이에요. 그 가나안 민족, 종족들 하고 원주민들이죠. 그들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경쟁했습니다.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벌였다고 해야겠죠. 그 땅을 놓고 서로 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 문제만 아니라 그 문명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문명이 잘못된 겁니다. 바알 숭배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비하면 대단히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그때 꽃이 피었다고 하던가 청동기 문화인지 철기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 신앙이 많이 변질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가장 큰 죄로 경고하곤 했습니다. 가나안이에요. 지역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왜 형제에게 알리매 그 요 장면만 본다면 함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떻게 되셨 술 취하셨는데 좀 어떠신가 보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확인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 문장만 갖고는 함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아버지의 장막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뭘 이렇게 잠을 잤겠죠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빨리 바깥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

샘과 야벳이 샘이 이제 큰 아들인가 보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인 것 같아요. 18 절에 나온 순서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샘과 야벳이 함의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거고 샘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그게 상황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성서 기자는 그것을 크게 잘못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냐 안 보냐? 함이 일부러 아버지 하체를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우연하게 보게 됐죠. 모르겠어요. 문장만 보면 함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글쓴이의 의도를 본다면 크게 잘못된 거죠.

노아가 술이 깨어 지나가는 말로 성에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네요. 아들들은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어머니에게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술이 취했을 때하고 술이 깰 때 하고 느낌이 달라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술이 깰 때의 느낌을 못 건디는 겁니다. 계속 술에 취해 있으려고 하죠.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라 함은 함을 가리키죠. 함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근데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샘과 야벳 막내가 함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이 문장만 갖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좀 지나치죠 사람이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닌 데요 저주를 받아야지 될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성서기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 겁니다.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저런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반론은 가능합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멸절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그 형제들, 그 한 가족의 엄청난 그 드라마를 전제하고 본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함이 저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경 기자들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신학 혹은 신학의 관점으로 저런 에피소드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26절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족을 가리켜서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같은 노아의 아들들인데 왜 거기서 샘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함은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고 야벳은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을 할까 좀 이상하긴 하죠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샘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함과 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게 나와요. 세 명의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거론됩니다. 야벳, 함 여기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나안이라고 해버리네요. 구약성경은 어쩔 수 없이 그 혈통 우선주의 아니면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게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어느 민족을 저렇게 저주받을 거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죠. 종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타적인 종족주의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요

소들이 구약성경에 남아 있어요. 보편적인 모든 인류애가 기본 바탕에 있죠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탕에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종족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과 셈족이 지금 여기에서 서로 대치되고 있잖아요. 함, 가나안 족이에요. 가나안 족은 셈을 섬겨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근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원주민 사이의 갈등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같은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나요?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른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쪽에 형편을 다 알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생김새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쨌든 각 종족의 특성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지 말고 평화 지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인류의 미래를 희망해야 되겠죠.

이제 노아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0장에는 족보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뭐 쪽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노아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